

主 題

삼성의 Y2K 대응 현황 및 계획

삼성SDS(주) 삼성 Y2K 지원팀 김 진 구

차 례

- I. Y2K 문제개요
- II. 추진 현황
- III. 문제점 및 대책
- IV. 향후 추진 방안

I. Y2K 문제개요

○ 밀레니엄 버그란?

Y2K 문제는 4자리 년도 표기를 2자리로만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패닉 현상이다. 예를 들면, 1998년에 보험계약을 한 사람이 2000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컴퓨터는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게 된다.

이는 년도 표시에 있어서 뒤의 두자리만을 가지고, 대소를 비교하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두번째 예로는 1993년생의 나이를 2000년에 -93세로 인식하여 취학통지서가 발급이 안되는 경우이다. 이 역시 두자리만을 가지고 기간계산을 하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1998년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2000년 보험금 청구시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거부

- 대소 비교 오류 : 00 < 98이므로 2000 < 1998로 인식

- 1993년생의 나이를 2000년에 -93세로 인식하여 취학통지서 발급 거부

- 기간계산 오류: 00 - 93 = -93이므로 2000 - 1993 = -93으로 인식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 드렸지만 실제로 이러한 Y2K 문제는 모든 정보시스템, 시간을 카운트하는 자동화 설비,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범위나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 부진할 경우에는 회사의 기간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으며,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주요 거래선과의 거래 중단, 금융기관과의 거래조건 악화, 법적 책임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작년에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사가 기업 신용평가지 Y2K 문제 해결 부진 기업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은 대출금리가 약 1.25% 상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한빛은행 등이 Y2K 대응수준을 기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Y2K 문제는 문제 해결 자체 뿐만 아니라 해결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결이 늦을 수록 기업이 당하는 불이익과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 Y2K 관련 소송 45건 발생(99년 2월)
- 미국 메릴린치사는 전세계적으로 Y2K 관련 소송비용 \$1조 예상

미국에서는 이미 Y2K 관련 소송이 45건 발생되었고, 메릴린치사는 전세계적으로 Y2K 관련 소송비용이 무려 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작년 12월 22일에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의료관리시스템 공급사인 IBM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유사버그 개요

요즈음 매스컴에서 Y2K 문제 얘기가 무성한 가운데 거론되는 유사 버그들이 있다. 여기서 99버그와 유러버그 두가지에 대해 알아 보자. 99버그란 낱자 데이터에 포함된 99라는 수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현상이다.

- 1999년 1월 1일, 스웨덴 3개 공항의 여권발급 업무 일시 중단
- “99”는 컴퓨터 자료 처리 종결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던 수치임

• 1999년의 년도 데이터 99는 정상적으로 입력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컴퓨터 자료 처리 종결로 인식하여 비정상적으로 처리

“99”라는 수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자료 처리종결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했던 수치이다. 하지만 1999년이 되어 “99”라는 년도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이를 처리 종결 명령으로 오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스웨덴 3개 공항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삼성 그룹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다. 유러 버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와, 마르크화 등 기존 통화와 유러화와의 환율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존 통화는 화폐표기시 소수점 이하 두자리만을 사용하는데 비해 유러화는 소수점 이하 네자리까지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표시하는 자리수를 늘리는 과제를 완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폐환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프랑화, 마르크화 등 기존 화폐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를 관리하나, 유러화는 4자리관리

-유럽통화동맹은 환율계산시 유러화 환산을 거치는 삼각계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

- 삼각계산법(프랑화 → 유러화 → 마르크화) 환율계산 위해 프로그램 수정

그룹에서는 구주 IT 센터 중심으로 일찍부터 문제 예방에 착수하여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II. 추진연혁

- 94.6 : Y2K에 대한 문제 인식(삼성SDS)
(삼성 항공 사천사업장 LMTAS 시스템 Y2K 적용 정보 입수)
- LMTAS : Lockheed Martin Tactical Aircraft System
- 94.10: Y2K대응 기능을 포함한 SAP R/3 패키지 적용 결정(삼성전자)
- 95.1 이후: 각사 SDS SM 조직을 통한 자체 준비(각사활동)
- 97.10: 삼성 항공 사천사업장 Y2K프로젝트 완료(삼성SDS)
(그룹 정보시스템 부문 Y2K모델 케이스 확보)
- 97.11: Y2K해결 방법론 정립(삼성SDS)
(UniSAVER/2000)
- 98. 4: 삼성 사장단 간담회 Y2K ISSUE화(삼성SDS)
- 98. 5: 삼성 Y2K 리딩을 위한 「삼성 Y2K지원팀」 발족 (삼성SDS)
(각사 대표이사 주관하에 「2000년 문제전담 T/F」 구성함의
- 98. 7: 각사 전담 T/F 구성 활동(각관계사)
(총 35개사(부문) 전담팀으로 구성)
- 98.7 이후: 한국 Y2K인증 제도 정립 참여(삼성SDS)
- 98.10: Y2K 관계사 진단 실시(삼성SDS)
(정보시스템, 비정보시스템, 제품, 법적 대응)
- 98.12: 한국 Y2K인증센터 설립참여(삼성SDS)

(99.1.12 한국Y2K 인증 센터 개원식: 정통부장관등)

- 99. 1: 그룹 사장단 수요회 Y2K 대응 현황추진 계획 발표(삼성SDS)
- 99. 2: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국내 최초 종합 Y2K 인증 취득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 99. 2: 그룹 C I O 조찬회 Y2K 대응 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삼성SDS)
- 99. 3: 국내 최초 종합 Y2K 인증 심사 지정 기관 선정(삼성SDS)

III. 추진현황

98년 4월 사장단 간담회 성격의 수요회 보고 당시에는 SDS가 개발해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진척도가 92% 수준이라는 점외에는 현황과약도 잘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자동화 설비와 관계사가 판매한 Y2K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 타 VENDOR/각사 자체 개발 정보시스템 등은 파악이 거의 불가하였다.

보고이후에는 SDS내에 그룹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계사에 대한 교육, 방법론 자문,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인식(10%), 진단(20%), 계획(10%), 변환(30%), 검증(20%), 이행(10%)의 단계별 관리체제를 정립하였다. 교육/세미나를 22회, 기술지원 및 자문을 91회(해외사업장 4회 포함) 실시하였다. (UniSAVER/2000 6단계 해결 방법론 적용)

	10%	30%	40%	70%	90%	100%
인식 (10%)	진단 (20%)	계획 (10%)	변환 (30%)	검증 (20%)	이행 (10%)	

아울러 각사는 전담 T/F를 구성하여 Y2K대응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전담요원 258명 이외에 PART TIME으로 동원되고 있는 인력은 2,600명에 달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433억원으로써 정보시스템 부문에 212억원, 비정보시스템에 217억, 제품 및 법적대응에 4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삼성에서는 문제 인식, 진단, 계획, 변환, 검증 및 이행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단계별 위험 요인을 제거시켜 나가는 UniSAVER/2000이라는 Y2K 해결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작년말에 도이치 은행 Y2K 관계자가 국내 기업들의 Y2K 대응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삼성의 이러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한 바 있다.

○ 종합 진척도

35개 관리대상 관계사의 총 대상 449,516건중 412,123건을 해결 완료하여 진척도는 92% 수준이다.(99년 1월말 기준) 내역별로는 정보시스템은 338,240건중 316,503건 해결 완료로 95% 수준이고, 자동화 설비 등 비정보시스템이 107,014건중 92,484건 해결 완료로 88%이며, 각사가 생산/판매한 제품은 4,262종중 3,136종을 해결 완료 함으로써 86%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 화학, 전자, 기계, 기타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변환, 검증, 이행준비를 모두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주, 기타는 물산, 독립계열의 관계사를 말함)

계열 부문	삼성	금융	화학	전자	기계	기타
정보시스템	95	99	95	95	87	95
비정보시스템	88	85	96	95	81	78
제품	86	해당없음	해당없음	93	84	83
평균진척도	92	99	96	95	84	83

○ Y2K 대상 자산의 조사 방법 및 기준 설정

Y2K 대상 자산의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Y2K 문제해결의 기준으로써, 그룹차원에서 진척도를 파악하는 기준선이다. 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자산집계 기준]

-정보시스템 구성 요소:H/W, S/W, DATA

H/W : 정보시스템 관련 H/W 자산

(IBM 계열, HP 계열, Work Station, MUX, IS팀 관리 UPS 등)

○동일 사양 H/W는 건수로 관리

(Ex:HP9000/T520을 10대 운영관리 시 자산건수는 10으로 규정)

(주,PC 등 개인관리 자산, Modem, Fax는 집계에서 제외)

S/W : 정보시스템 관련 S/W 자산 (System S/W, 응용 S/W, Package 등)

System S/W : O/S, DBMS, Compiler, 각종 Utility (H/W에 종속인 Utility는 1건으로 규정), N/W 관련 S/W 등 동일 사양 H/W의 O/S, DBMS 등은 개별 건수로 관리

(Ex:HP9000/T520 10대에 설치된 동일 Oracle Version은 자산건수 10으로 산정)

응용 S/W:프로그램 단위 (기준은 품질시스템에 운영중인 프로그램 단위(본)로 규정)

Package:프로그램 단위 (본수 산정이 어려운 Package인 경우 진단(영향평가) 가능범위까지 산정)

(주, 개인 OA용 S/W (Power-Point, EXCEL, MS-WORD, 훈민정음 등)는 집계에서 제외)

DATA:현재 관리대상인 Data File 수 (DB Table, Indexed Sam File, Sam File)

CAD/CAM, 운전정보시스템(OIS) 등은 각사 자산기준에 준하여 처리

[비정보시스템 자산집계 기준]

-비정보시스템 구성요소:H/W, S/W, DATA

H/W : 비정보시스템 관련 H/W 자산

○주요 자산

계 기 : Flow - Meter, Multi - Meter, Field Actuator, Circuit Breaker 등

전장기기 : PLC, DCS, RTU, CNC, ROBOT, 전용CONTROLLER (Weld, Motion 등)

계측기기 : 분석기, 기록기, 비전시스템, 센서류(Transmitter, Transducer)

통신기기 : LOCAL (DH+, ModBus+, NodeBus), LAN (HUB, Repeater 등)

전산기기 : PC, Workstation, Micro Computer, Mini Computer, I/O 장치 (Storage 등)

자산 기준은 장비, 설비, 시설 등의 구성요소이며, 동일 H/W사양시 건수로 관리 PLC, DCS, RTU 등의 전장기기는 특수모듈 (통신모듈, PID모듈 등)을 제외한 일반 I/O Module 은 대상건수에서 제외 산업용 PC, NetWork 내의 Modem 등은 자산집계에 포함

S/W:비정보시스템 관련 S/W 자산

○주요 자산

시스템 S/W : FirmWare, O/S, DBMS, 미들웨어, 프로그래밍언어, NM S, 개발S/W 등

응 용S/W : Ladder, DCS Application, NC Application 등

Package S/W : 공정관리, 생산관리, 설비 관리, 품질관리, Process 관리 등

CAD/CAM, 운전정보시스템 (OIS) 등은 각사 자산기준에 준하여 분류 정보시스템내의 S/W 자산집계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DATA:비정보시스템 관련 Data File 자산

○주요 자산:Historical DB, DB Table, Indexed Sam File, Sam File 등

○정보시스템내의 DATA 자산집계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 진척도를 파악하는 주요 양식
 - 정보시스템, 비정보시스템 조사 양식은 동일

회사(부분)		작성부서	
--------	--	------	--

작성일: 년 월 일

구	분	대상(건)	단						진척도 (%)	
			인식완료	진단완료	계획완료	변환완료	검증완료	이행완료		
정 보 시 스템	문제없음		N/A	N/A	N/A	N/A	N/A	N/A		
	확 인 증			N/A	N/A	N/A	N/A	N/A		
	문제있음	수 정		N/A						
		교 체		N/A						
		폐 기		N/A			N/A	N/A		
		사 용		N/A	N/A	N/A	N/A	N/A	N/A	
	소 계		N/A							
계										

【작성 방법】

- 대 상 : 날짜 관련 기능 또는 chip이 포함되어 Y2K 진단(영향평가) 대상인 자산
 대 상 = 인식완료 + 진단완료 + 계획완료 + 변환완료 + 검증완료 + 이행완료
 (각 대상은 6단계중 최종 해당 단계에만 기록)
- 문제없음 : 진단(영향평가)(공급사 확인, 자체검증 등)을 통하여 Y2K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자산
- 확 인 증 : 문제유무 파악이 진행중인 자산 (공급사 도산, 부재 등으로 문제 파악이 불가능한 자산 포함)
- 문제있음 : 진단(영향평가)(공급사 확인, 자체검증 등)을 통하여 Y2K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자산
- 진 척 도 : 인식완료(10%), 진단완료(30%), 계획완료(40%), 변환완료(70%), 검증완료(90%), 이행완료(100%) 방법론 적용

$$\text{진척도} = (\text{인식완료} \times 10 + \text{진단완료} \times 30 + \text{계획완료} \times 40 + \text{변환완료} \times 70 + \text{검증완료} \times 90 + \text{이행완료} \times 100) / \text{대상}$$
- 수 정 :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하기로 계획한 자산 (변환, patch, 부분교체등 포함)
- 교 체 : 기존 자산을 신규 자산으로 교체하기로 계획한 자산 (업그레이드 포함)
- 폐 기 : 신규 자산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 자산을 폐기하기로 계획한 자산
- 사 용 : Y2K 문제가 있으나 조치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자산 (기능상 문제없는 자산 포함)

- 삼성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

회사(부문)		작성부서	
--------	--	------	--

작성일: 년 월 일

구	분	대상(건)	단						진척도 (%)	
			인식완료	진단완료	계획완료	변환완료	검증완료	이행완료		
제 품 (프로젝트)	문제없음		N/A	N/A	N/A	N/A	N/A			
	확 인 증			N/A	N/A	N/A	N/A	N/A		
	문제있음	당사부담		N/A						
		타사부담		N/A						
		공동부담		N/A						
		미 정		N/A			N/A	N/A	N/A	
		소 계		N/A						
	계									

【 작 성 방 법 】

- 프로젝트: 진행중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예: 건설, 플랜트, SI, 엔지니어링, 선박 등)

- 대 상 : 날짜 관련 기능 또는 chip이 포함되어 Y2K 진단(영향평가) 대상인 제품.

10년전 이후 완료 프로젝트 포함 권장

대 상 = 인식완료 + 진단완료 + 계획완료 + 변환완료 + 검증완료 + 이행완료

(각 대상은 6단계중 최종 해당 단계에만 기록)

- 문제없음 : 진단(영향평가)(공급사 확인, 자체검증 등)을 통하여 Y2K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제품

- 확 인 증 : 문제 유무 파악이 진행중인 제품 (공급사 도산, 부재, 기술 문제 등으로 문제 파악이 불가능한 제품 포함)

- 문제있음 : 진단(영향평가)(공급사 확인, 자체검증 등)을 통하여 Y2K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제품

- 진 척 도 : 인식완료(10%), 진단완료(30%), 계획완료(40%), 변환완료(70%), 검증완료

(90%), 이행완료(100%) 방법론 적용

진 척 도 = (인식완료 × 10 + 진단완료 × 30 + 계획완료 × 40 + 변환완료 × 70 +

검증완료 × 90 + 이행완료 × 100) / 대상

- 당사부담 : 문제 해결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계획한 프로젝트

- 타사부담 : 문제 해결 비용을 타사/고객사가 부담하기로 계획한 프로젝트

- 공동부담 : 문제해결 비용을 당사와 타사/고객사가 공동 부담하기로 계획한 프로젝트

- 미 정 : 문제 해결 방법 및 비용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 부문별 진척도

부문별 진척도는 정보시스템은 95% 수준으로써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H/W, S/W, DATA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변환을 거의 끝내고 검증 및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대고객 금융창구 서비스 업무가 중요한 금융계열사의 진척도가 가장 앞서 있고, 삼성생명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국 Y2K 인증 센터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심사를 받았다. 2월 24일 공식적으로 전체 사업장의 정보시스템(IT), 비정보시스템(NON-IT) 종합으로 국내 제1호 인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의료원, 삼성전자, 삼성SDS, 제일모직, 삼성투자신탁증권은 인증을 신청하였고, 삼성화재는 3월 22일부터 인증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작년 7월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작년 12월 한국전산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국내 Y2K 해결사례 공모전에서 삼성카드가 최우수상을, 삼성화재와 삼성종합화학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금융계열사는 99년 3월까지 문제해결을 조기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

업종별 진척도는 금융 99%, 화학 95%, 기계 87% 등이고, 완료 예상 시점은 99년 6월말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비정보시스템 부문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거나, 날짜기능을 포함한 자동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룹 현황을 파악한 결과 Y2K 문제 소지가 있는 비정보시스템은 생산, 연구개발, 시설관리, 의료장비 등 관계사 경영활동 전역에 걸쳐 존재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현재 점검중인 비정보시스템의 예를 들면, 생산부문의 로봇, 자동창고, 경보기기, 제어설비, 실적기록 장비, 연구개발 부문의 계측기, 분석기, 기록기, CAD 장비, 시설관리 부문의 출입장치, 공조설비, 엘리베이터, IC 카드, 의료 장비 부문의 각종 의료/진단 장비 등이다. 현재 상황은 문제범위를 파악한후 본격적인 변환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주요 설비인 화학계열사의 진척도가 가장 앞서 있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BP화학의 경우에는 AMOCO, BP 와 같은 제휴사의 지원을 받아 문제해결에 착수한바 있다. 석유화학은 작년 2월, 3월, 12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AMOCO로부터 Y2K 심사를 받았는데 최근 심사에서는 Excellent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한국 Y2K 인증 센터로부터 종합 부문 인증심사를 받았다. 2월 24일 공식적으로 전체 사업장의 정보시스템(IT), 비정보시스템(NON-IT) 종합으로 국내 제2호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국내화학산업에 있어서는 제1호로 기록되었다.

업종별 진척도는 화학이 96%, 금융이 95%, 기계 81% 등이며, 완료 예상 시점은 3월에서 6월에 걸쳐 있다. 제품은 삼성이 생산하여 판매한 날짜관련표시 및 시간처리 기능이 있는 완제품 또는 부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불산 및 독립계열사의 경우에는 에스원의 방법 기록 프린터와 밀링 방법 S/W, 에버랜드의 빙축열 시스템, 오페수 처리 시스템, 화재 탐지 시스템 등 건수가 얼마 안되어 해결이 다된 상태이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다양한 단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통합시스템을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건설, 등은 그동안 거래했던 주요 기자재 공급업체, 시공업체들로부터 일일이 공문을 통해 검증을 받는 등

법적문제 발생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전자는 PC, FAX, 영상기기 등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PC통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기계 계열사의 제품은 승용차, 상용차, PLC, 카메라 등 대부분이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선박의 GPS, FA 기기, 중앙 제어기, 발전설비 등에 문제가 예상되어 해결을 진행중이다.

IV. 문제점 및 대책

첫째, 대상장비중 24시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한 테스트는 평소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설비에 대해서는 휴무, 보수시간을 활용해서 집중 점검을 해야 하므로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야 하겠다.

둘째, 장비중에서 공급한 회사가 도산을 했거나 유지보수지원이 안되는 것은 다른 장비를 구입하여 교체를 해야한다.

셋째, 그룹 전반적으로 해외사업장의 진척도가 부진하다. 본사 점검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각 사업장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진척관리는 더욱 체계화해야 하겠다. 일본 삼성의 경우 3차례 Y2K 대응수준 진단을 받는 등 체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중 추진이 가장 우수하다.

넷째,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의 대응수준 또한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 처해있다. 진단 및 지원체제 강화 그리고 문제해결 독려를 위해 대응수준에 따른 구매조건의 차별화 지침 통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부품 공급선 다원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외부기관과 연결된 EDI, FIRM BANKING 등에 대해서도 은행,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검증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대응해야 하겠다.

여섯째, 판매한 제품이나 수행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길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기술 및 법률전문가가 합동대응을 해야 하겠고, 분쟁과 관련된 그룹내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V. 향후 추진 방안

Y2K 문제 해결을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진척관리를 강화토록 해야 하겠다. 지금부터는 월별 진척관리를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각사 감사팀 등과 합동진단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외사업장, EDI, Firm Banking 등 외부와 연계되는 시스템, 그리고 협력업체 등 진척도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사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도높은 대응을 해야 하겠다.

특히,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해도 일부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시를 대비한 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3/4분기에는 집중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 비상계획수립지침은 기재포하였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제고를 위해 SDS의 삼성

Y2K 지원팀은 행정부처 및 유관단체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각사 T/F 및 홍보, 재무 등 유관부서는 언론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응과 사업매각 또는 인수에 따른 대응을 담당토록 해야 하겠다.

한편, SDS는 국내 최초로 종합 인증심사기관 자격을 3월 8일 획득하였다.

끝으로 각분야의 기관장님 또는 대표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Y2K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 주요 거래선 및 금융기관과의 유리한 거래 조건 유지, 법적 책임의 방지 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경영과제다.

특히, Y2K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기업 뿐만 아니라, 임원 개인도 주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문제를 99년도 최우선 경영과제의 하나로 다 시금 인식하고, 3/4 분기내에는 본 과제가 반드시 완결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법적 대응체제를 완비함은 물론, 4/4 분기에는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제 Y2K 문제 해결 기한은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재삼 인식하여야 할 때다.

한편으로 Y2K 문제는 RISK도 수반하지만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잘 대응하지 못한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한국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Y2K 라운드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이 미흡한 국가나 기업에게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 교역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의 개념이다.

관련업체는 조기에 Y2K 인증을 획득하고 "Y2K 라운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밀레니엄 버그 해결로 새로운 천년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하는 동시에,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첫 걸음이 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다.

김진구

삼성 SDS(주) 삼성Y2K 지원팀 팀장